



(주)뉴인텍

012340 | KOSDAQ | IT부품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21 | 장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243 (주)뉴인텍 회의실

Executive Summary

▶ 뉴인텍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과 이사 및 감사 선임,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뉴인텍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사외이사의 재선임과 감사의 신규 선임의 건을 상정했는데, 사외이사 후보자 박철원은 사외이사로 뉴인텍에 장기간 재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활동 등의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 재선임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아울러 감사 후보자 송정훈은 현재 뉴인텍의 계열회사이며, 이전에는 뉴인텍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였던 NCMF의 관리팀장을 역임하고 있어 감사로서 독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안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찬성	반대
2-1	사외이사 박철원 재선임	찬성	반대
제3호	감사 선임의 건	찬성	반대
3-1	감사 송정훈 신규선임	찬성	반대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중립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37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선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외이사	박철원	59.01.27	3	재선임	(주)서우교역 대표이사	(주)세광유통 이사	미)조지워싱턴대학 MBA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비상근 감사	송정훈	72.07.08	3	신규선임	(주)두산 경리팀과장 (주)신화인터크루 경영지원 팀장	(주)NCMF 관리팀장	인덕대학교 공업경영학 졸업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3(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00,000,000	1,000,000,000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19억원 감소하여 총 자산은 약 566억원 수준, 부채는 약 9억원 증가한 363억원 수준이며 결손금 누적 등에 따라 자본 총계는 약 29억원 감소한 203억원 달성
-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0억원 증가해 506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실을 지속하고 있으나 적자폭을 줄여 약 18억원의 영업손실 기록, 당기순손실 역시 지속되었으나 적자폭을 줄여 약 30억원의 당기순손실 기록
- 적자 지속으로 인해 결산 배당은 해당 사항 없음
-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 제안

Discussion

Analysis

▶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사외이사 후보자 박철원은 뉴인텍 사외이사로서 장기간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외이사로서 이사회를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 권고
- 최대주주 개인 회사 등과의 매출 거래 및 자산 거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과 이익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중립적 의사결정과 기업 지배구조의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Discussion

Proposal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외이사	박철원	59.01.27	3	재선임	(주)서우교역 대표이사	(주)세광유통 이사	미)조지워싱턴대학 MBA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역할 강화 필요

▶ 사외이사 역할 강화 필요

사외이사 후보자 박철원은 서우교역의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세광유통의 이사를 맡고 있다. 박철원 후보자는 2002년 정기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수 차례 재선임되었으며, 금번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 번 재선임 결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박철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장기간 회사에 재직해 온 점, 그리고 이사회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사외이사로서 이사회를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 의견을 제안한다.

우선 박철원 후보자는 2002년부터 약 13년 동안이나 뉴인텍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만약 이번에 재선임 된다면 재직 기간은 16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뉴인텍 이사회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기수 이사와 뉴인텍에서 30년 넘게 재직해 온 이창호 이사, 그리고 박철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요 경영상의 판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를 견제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할 때 장기간 재직해 온 박철원 후보자의 재선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철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비상근 사외이사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소집공고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 내역을 보면 박철원 사외이사는 2013년 2월과 3월에 개최된 제36기 결산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소집,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등 3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2014년 지금까지도 2월에 2차례 개최된 제37기 결산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소집 이사회에만 참석한 바 있다. 그 전년 역시 동일하다. 2012년 2월과 3월에 개최된 결산 이사회, 주주총회소집, 그리고 제35기 정기주주총회 3차례만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해당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100%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박철원 사외이사는 장기간 회사에 근무하여 회사의 사업과 경영 환경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를 견제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는 나서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박철원 사외이사 후보자의 재선임은 부결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뉴인텍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경영 환경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인 NCMF 등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절실하다. 그리고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감사 신규 선임 후보자 송정훈은 현재 NCMF의 경리팀장을 맡고 있음. 그런데 NCMF는 뉴인텍이 지분을 40% 보유한 관계회사이면서 동시에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이기 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송정훈 후보자의 감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됨. 그러므로 송정훈 후보자에 대해 감사 선임 반대 의견을 권고
- 최대주주 개인 회사 등과의 매출 거래 및 자산 거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과 이익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중립적 의사결정과 기업 지배구조의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Discussion

Proposal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비상근 감사	송정훈	72.07.08	3	신규선임	(주)두산 경리팀과장 (주)신화인터크루 경영지원 팀장	(주)NCMF 관리팀장	인덕대학교 공업경영학 졸업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 역할 강화 필요

▶ 감사의 독립성 확보 필요

감사 후보자 송정훈은 현재 NCMF의 경리팀장을 맡고 있으며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비상근 감사에 신규 선임 후보자로 나섰다.

송정훈 후보자가 경리팀장으로 재직중인 NCMF는 뉴인텍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NCMF는 과거 뉴인텍의 최대주주인 장기수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그리고 2011년 중에 뉴인텍은 NCMF의 지분 40%를 약 10억원에 취득해 관계회사로 편입했다. 그런데 취득 당시 NCMF는 총자산 77억원에 부채가 64억원으로 순자산은 13억원에 불과했으며 매출 역시 89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약 7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인텍의 해당 회사의 지분 40%를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취득했다.

그나마 NCMF의 매출 89억원도 대부분 뉴인텍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NCMF를 취득한 해인 2011년 뉴인텍은 NCMF로부터 약 67억원을 매입했으며 그 이전인 2010년에는 약 122억원을 매입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에도 뉴인텍은 NCMF로부터 약 66억원을 매입했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 NCMF의 총자산은 71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부채는 69억원으로 증가해 순자산은 약 2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가치가 감소했다. 그런데 뉴인텍인 이러한 NCMF 지분을 취득했으며 그나마도 지분을 40%만 취득하여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 형태로 보유하게 되었다. 뉴인텍에 NCMF 지분 40%를 매각한 최대주주 등은 지분 매각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뉴인텍으로서의 적자가 지속되고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으며 그나마도 종속기업으로서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손해가 되는 거래를 한 셈이다.

그리고 송정훈 후보자 이전에 뉴인텍의 현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봉규 감사는 현재 시엔피아쿠아라는 회사에서 재무팀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시엔피아쿠아는 뉴인텍 최대주주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로 보인다. 즉, 송정훈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전봉규 현 감사 역시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두 경리팀장과 재무팀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인 셈이다.

뉴인텍이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인 NCMF에서 경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그리고 NCMF와 뉴인텍이 지분 거래와 매출/매입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점, 그리고 현 감사인 전봉규 감사 역시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송정훈 감사 후보자가 감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송정훈 감사 후보자의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뉴인텍의 이사 수는 3인(사외이사 1인 포함)이며, 상정된 보수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 2012년 뉴인텍은 10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에 대해 약 3.4억원의 보수를 집행하였음 (사외이사 무급)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과 동일하게 감사 보수 한도액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 1인에 대해 무급으로 상정하였으며, 2012년 집행 실적 역시 무급
-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정된 의안이며, 전년도 한도액과 집행 실적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 의견을 제안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3(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00,000,000	1,000,000,000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

이사 보수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뉴인텍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4 (1)	4 (1)	3 (1)
주총승인금액(천원)	1,000,000	1,000,000	1,400,0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337,799	260,235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뉴인텍은 사외이사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적

뉴인텍의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감사의 수	1	1	1
주총승인금액(천원)	-	-	-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	-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뉴인텍은 감사에 대해 보수를 책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현 감사와 금번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감사 모두 최대주주의 사실상 개인회사에서 팀장으로 종속되어 근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